2026.03.09.

위험자산 선호(Risk-on)와 머니 무브(Money Move), 금융업권별 영향과 시사점

김정현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02.368.5347
jhkim911@korearatings.com

김경무 평가기준실 실장
02.368.5524
kmkim@korearating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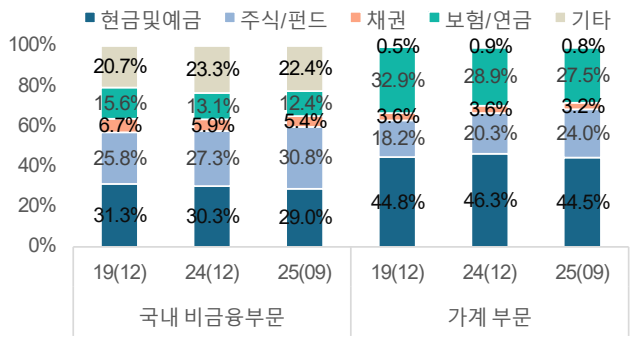
❖ Summary

최근 국내 증시 상승과 예금 금리 매력도 하락,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등 경제 여건 변화로 경제주체들의 자금운용 전략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 각종 제도 개선 등 정부의 다각적인 증시 부양 정책 추진으로 시중자금이 예금에서 주식·펀드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금융 쏠림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산적금융전환 정책 기조 또한 시중자금의 자본시장 투자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가 이끄는 이러한 시중자금 흐름의 전환은 경제주체들의 위험자산 선호(Risk-on)와 금융자산 리밸런싱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업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국내 증시로의 머니 무브가 지속되고 있다. 2024년 12월말 2,399.49포인트에 불과하던 KOSPI 지수는 2025년 12월말 4,214.17포인트로 상승하였으며, 2026년 2월 26일 종가기준 6,307.27포인트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후 3월 현재 5,000포인트 대에서 등락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12월 15.3조원이던 일평균거래대금 규모는 2026년 1월과 2월에 각각 42.0조원, 46.1조원으로 급증하였으며, 투자자예탁금과 신용거래융자 규모도 2026년 2월말 각각 118.7조원, 32.7조원을 기록하며 2024년 12월말(각각 54.2조원, 15.8조원)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3월초 대외 지정학 리스크 발생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큰 폭의 조정 장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구조적인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투자자가 ETF순매수를 중심으로 증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나, 환율 및 대외변수 등의 영향으로 월별 순매수규모는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월별 ETF순매수 금액은 2025년 1~9월에는 평균 2.0조원에 그쳤으나, 4분기에 평균 5.5조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26년 1월과 2월에 각각 15.0조원, 9.9조원으로 급증하였다.

시중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국내 비금융부문 금융자산 중 주식·펀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예금취급기관의 예금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이후 가계 저축성예금 증감액과 개인ETF순매수 금액, 투자자예탁금 및 개인CMA잔고 증감액 간 역(-)의 상관관계는 매우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25년 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수신 잔액은 17.4조원 감소(은행 △9.3조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8.1조원)한 반면 투자자예탁금과 CMA잔고는 각각 11.4조원, 6.8조원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예금으로부터 증시로의 대규모 자금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종합IB의 발행어음 및 원금지급형 IMA 상품도 금리 매력도를 바탕으로 저축성예금의 대체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어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자산의 추가적인 이동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내 비금융부문 금융자산 구성 비중의 변화



가계 저축성예금 증감액과 증시자금 간 역(-)의 상관관계

가계 저축성예금 월별 증감액과의 상관계수	2020 년 ~2024 년	2025 년
월별 개인 ETF 순매수 금액(A)	-0.1254	-0.6788
투자자예탁금 월별 증감액(B)	-0.4121	-0.9376
개인 CMA 잔고 월별 증감액(C)	-0.0534	-0.4238
A+B+C 합계액	-0.3233	-0.8901

주) 1. 가계 저축성예금은 예금은행 원화예금 기준
2. 월별 증감액은 월말 잔액의 전년동월말대비 증감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자료를 기초로 한국기업평가 분석

주)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상 경제부문별 금융자산 잔액 기준이며, 국내 비금융부문은 가계(비영리단체 포함), 비금융법인, 일반정부 합계 기준

경제주체들의 위험자산 선호(Risk-on)로 시중자금의 흐름이 자본시장 위주로 전환되면서 금융투자업권에 유리한 사업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 중인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증시 자금유입 확대는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기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증권업권은 위탁매매실적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 중이며, 증시주변자금 증가와 금융상품 판매 호조로 장단기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도 운용상품의 다양성과 운용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DC와 IRP를 중심으로 증권업권 비중은 확대되고 보험업권 비중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생산적금융전환 추진에 따른 발행어음 및 IMA 사업 확대,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및 혜택 강화, 세제혜택이 부여될 국민참여형펀드 조성 계획도 증권업권의 수익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호적인 조달 환경 하에 위험 추구 성향이 높아지면서 운용 측면의 리스크도 커지고 있으며, 만기 및 유동성 변환 기능에 따른 신용·유동성 리스크 노출도도 여전히 높아 과거 금융위기나 부동산PF 사태와 같은 금융시장 충격 발생시 리스크 관리 능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금취급기관은 예금 이탈에 따른 유동성 부담에 노출되어 있으며 보험업권도 가계 금융자산의 자본시장 이동 확대가 영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증시자금유입이 확대되면서 예금취급기관의 수신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리매력도가 낮아진 저축성예금의 수신자금이 증시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동하고 있고 저원가성 핵심예금(요구불예금)도 증권사 RP나 CMA 등 단기성 금융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예금 이탈을 메우기 위한 은행채 발행 등 시장성 자금 조달 증가나 수신금리 인상이 순이자마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권의 경우 가계부문 조달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감안하면 가계 금융자산의 자본시장 이동 확대로 저축성 보험 등의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2024년 2분기 이후 적립금 규모가 증권에 추월당한 상황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자금조달을 차입 및 사채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권은 가계부문 조달의존도가 높지는 않지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조달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 가계 부문의 머니 무브에 따른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예금 이탈이 조달 측면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증권업에 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조성되면서 금융산업 내 경쟁지위 측면에서 은행과 대형증권사 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영업기반 및 자본력이 우수한 종합IB는 외형확대와 이익창출규모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산업 내 비중과 영향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위험성향과 리스크 프로파일 측면에서 대형증권사는 은행 대비 여전히 높은 사업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신용평가 관점에서는 이러한 사업위험의 차이를 상쇄하려면 충분한 재무완충력 보유와 리스크 관리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 증시 변동성에 노출된 위탁매매 부문과 금리·주가 등 시장 변동성에 노출된 상품운용 부문의 실적변동성도 안정적인 이자마진이 주된 수익기반인 은행과 비교하여 높은 리스크 요인이다. 수익안정성 강화를 통해 시장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실적대응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검증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금융 전환은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위험선호와 리스크 익스포저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손실흡수력 유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금융 쏠림을 억제하고 생산적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운용규제 개선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금융업권의 생산적금융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부동산PF 등 부동산금융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주된 수익원으로 기능해 온 부동산 금융의 위축이 불가피하므로 대체수익기반 발굴을 통한 퇴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성장펀드 참여와 첨단산업 및 벤처·혁신기업 투자 확대, 지역금융 강화 등을 포함하는 생산적금융 전환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금융업권의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위험선호와 리스크 익스포저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위험가중치 완화나 감독 개선 등 규제 유인 체계가 마련되고 있어 생산적금융 공급 확대가 금융업권의 건전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손실흡수력 유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생산적금융 확대에 따른 자산포트폴리오 재편과 건전성 추이에 초점을 두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CONTENTS

I. 정책 변화가 이끄는 시중자금 흐름의 전환 ····· 4

II. 금융시장 데이터로 살펴본 머니 무브(Money Move) ····· 6

1. 주식시장 동향과 자금유입의 흐름 ····· 6

2.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구성 비중 변화 ····· 7

3. 퇴직연금 운용에서 나타나는 위험선호 추세 ····· 9

4. 금융업권별 조달구조와 머니 무브 ····· 11

III. 금융업권별 영향과 시사점 ····· 12

I. 정책 변화가 이끄는 시중자금 흐름의 전환

최근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힘입어 시중자금의 머니 무브 가속화

최근 국내 증시 상승과 예금 금리 매력도 하락,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등 경제 여건 변화로 경제주체들의 자금운용 전략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 각종 제도 개선 등 정부의 다각적인 증시 부양 정책 추진으로 시중자금이 예금에서 주식·펀드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증시 부양 정책의 두 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 개편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최근 상법 개정 및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상법 개정	1차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 전자주주총회 제도 신설 도입
	2차 개정 (지배구조 개선)	· 집중투표제 의무화(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 · 분리선출 감사위원 증원(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3차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 상장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 · 기존 자사주는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소각 ·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배정, 스톡옵션 행사 등은 주총승인 하에 예외 인정
세제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 폐지 · 증권거래세 정상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세제 지원	·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 고배당 기업(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의 주주 대상 분리과세 도입
	개인종합관리계좌(ISA) 확대	·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BDC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및 혜택 강화
	국민성장펀드 세제 지원	· 국민참여형펀드(6,000억원 규모) 장기투자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자료) 한국기업평가 정리

정부의 생산적금융 전환 정책 기조도 시중자금의 자본시장 투자 전환 유도

정부가 부동산금융 쏠림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산적금융전환 정책 기조 또한 시중자금의 자본시장 투자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정책금융 전환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통한 미래 첨단전략산업 집중투자(150조원+a)와 기술금융 및 벤처금융 강화가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업권별 건전성 규제 개편을 통해 벤처기업/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촉진하고, 감독 방향 전환을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회피 성향 완화를 유도한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토큰증권(STO) 제도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정착 등으로 초기 창업기업 및 중기 성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종합IB의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확대로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한다. 주식시장

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시장질서 확립과 일반주주 권익 강화가 추진되며,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및 퇴직연금 제도 개선도 지속된다.

[표 2] 정부의 생산적금융전환 추진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정책금융 전환	·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a 집중투자 · 부동산금융 관련 공적보증 축소, 기술금융 강화 · 장기스케일업 투자와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를 통한 벤처금융 혁신 · 맞춤형 지역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지역 중심의 에너지전환 지원
금융회사 전환	· 금융업권의 건전성 규제 개편을 통해 벤처기업/정책펀드 등 생산적 자금공급 확대 유도 · 부동산 금융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 감독 방향 전환을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회피 성향 완화 ·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 소상공인 금융 채널을 재구축
자본시장 전환	· 초기 창업기업 및 중기 성장기업의 자본시장 자금조달 수단 확대 - 토큰증권(STO) 제도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정착 · 자본시장 Player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 - 종합IB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확대,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25% 이상) · 주식시장 투자자 신뢰 회복 및 수요기반 확충 - 시장질서 확립과 일반주주 권익 강화, 외국인 투자여건 및 퇴직연금 제도 개선 추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09), 한국기업평가 정리

위험자산 선호와 머니 무브에 따른 시중자금의 이동흐름과 금융업권 변화에 주목

정부의 정책 변화가 이끄는 이러한 시중자금 흐름의 전환은 경제주체들의 위험자산 선호(Risk-on)와 금융자산 리밸런싱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업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가계 부문의 투자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예금취급기관에서는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예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증권업권은 위탁매매실적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 중이며,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거래융자 등 증시주변자금 증가와 금융상품 판매 호조로 장단기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원리금비보장형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DC 와 IRP 를 중심으로 증권업권 비중은 확대되고 보험업권 비중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금융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시중자금의 이동 흐름과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리밸런싱 동향을 분석해보고, 금융업권에 나타나는 변화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II. 금융시장 데이터로 살펴본 머니 무브(Money M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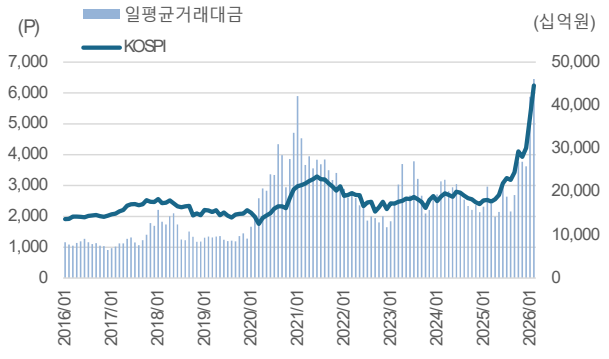
1. 주식시장 동향과 자금유입의 흐름

국내 증시로의 머니 무브 지속, 개인ETF순매수가 증시 상승세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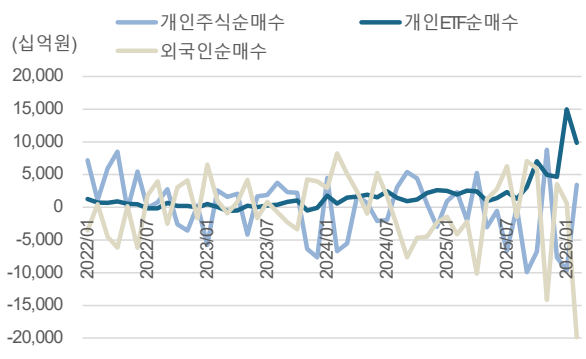
국내 증시로의 머니 무브가 지속되고 있다. 2024년 12월말 2,399.49포인트에 불과하던 KOSPI 지수는 2025년 12월말 4,214.17 포인트로 상승하였으며, 2026년 2월 26일 종가기준 6,307.27 포인트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후 3월 현재 5,000포인트 대에서 등락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12월 15.3조원에 불과하던 일평균거래대금 규모는 2026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42.0조원, 46.1조원으로 급증하였다. 3월초 대외 지정학 리스크 발생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큰 폭의 조정 장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구조적인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투자자가 ETF 순매수를 중심으로 증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2025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나, 환율 및 대외변수 등의 영향으로 11월과 2월에는 큰 폭의 순매도를 기록하는 등 월별 순매수규모는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월별 ETF 순매수 금액은 2025년 1~9월에는 평균 2.0조원에 그쳤으나, 4분기에는 평균 5.5조원으로 확대되었다. 2026년 들어서도 1월과 2월 개인 ETF 순매수액이 각각 15.0조원, 9.9조원을 기록하며 증시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 주가지수 및 거래대금 월별 추이



[그림 2] 투자주체별 월별 순매수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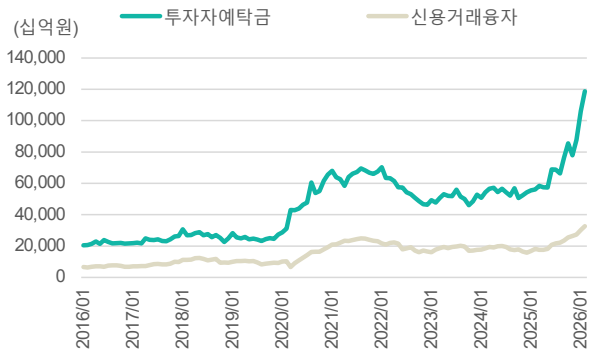


주) 1. 일평균거래대금은 KOSPI, KOSDAQ, KONEX 합계 월별 일평균거래대금 기준
2. 투자주체별 순매수금액은 KOSPI, KOSDAQ, KONEX 월별 합계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기업평가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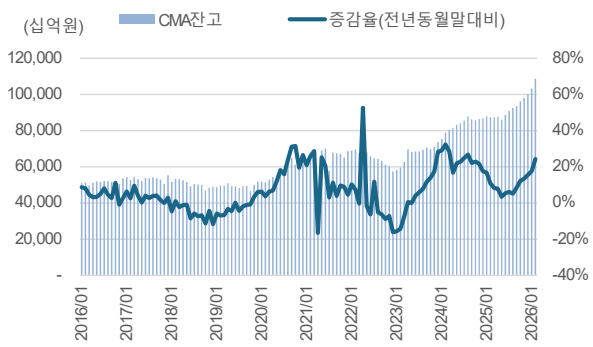
시중자금 유입 지속되며 증시주변 자금도 확대

증시주변자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투자자예탁금과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2026년 2월말 각각 118.7조원, 32.7조원을 기록하며 2024년 12월말(각각 54.2조원, 15.8조원)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단기자금인 CMA 잔고 또한 2024년 12월말 86.8조원에서 2026년 2월말 108.7조원으로 증가하여 시중자금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거래융자 추이



[그림 4] CMA잔고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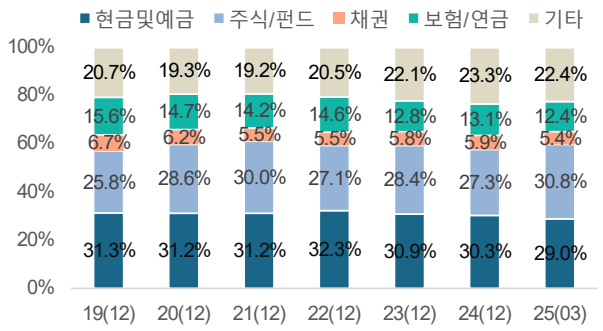
주) 월말 잔액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기업평가 정리

2.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구성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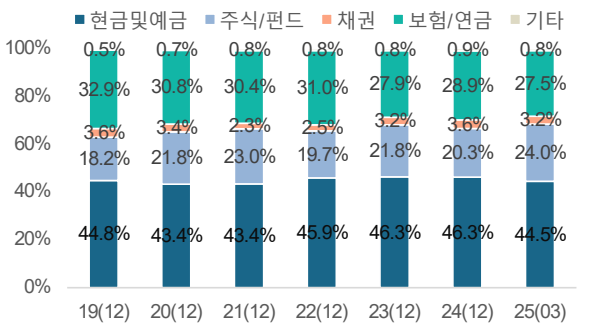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 중 주식 · 펀드 비중이 현금및예금 비중 추월

시중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국내 비금융부문 금융자산 중 주식 · 펀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바탕으로 국내 비금융부문(가계+비금융법인+일반정부 기준)의 금융자산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말 25.8%이던 주식 · 펀드 비중은 2024년말 27.3%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3분기말에는 30.8%까지 확대되여 현금및예금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국내 비금융부문 금융자산 구성 비중 추이



[그림 6] 가계 부문 금융자산 구성 비중 추이



주) 금융자산 구성 비중은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상 금융자산 잔액 기준, 국내 비금융부문은 가계(비영리단체 포함), 비금융법인, 일반정부 합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가계 부문도 금융자산 중 주식 · 펀드 비중 확대

가계 부문(비영리단체 포함) 금융자산에서도 주식 · 펀드 비중이 2019년말 18.2%에서 2025년 3분기말 24.0%로 확대되었다. 2025년 3분기말 가계 금융자산[1]은 5,980조원으로 2024년말 대비 508조원 증가하였다. 계정별로는 현금및예금 2,664조원(44.5%), 보험 · 연금 1,642조원(27.5%), 주식 · 펀드 1,433조원(24.0%), 채권 192조원(3.2%), 기타 49조원(0.8%)로 구성되

[1]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원으로, 금융자산 24.2%, 부동산 71.1%, 기타실물자산 4.7%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자산에 전월세보증금(6.6%)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가계 보유자산 중 실질금융자산 비중은 17.6%이며, 부동산 관련 자산(부동산+전월세보증금)이 77.7%에 달하여 부동산 집중도가 매우 크다.

어 있다. 특히 2025년 3분기 누적 금융자산 증가액 508조원 중 주식·펀드 증가액이 324조원(64%)으로 가계 금융자산 증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5년 들어 가계 투자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이 확대된 가운데 9월말 KOSPI 지수가 2024년말 대비 43% 급등한 데 따른 평가이익의 영향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4분기에도 KOSPI 지수가 23% 상승한 가운데 국내 증시 개인순매수 금액(ETF 포함 기준)은 11.0조원으로 3분기 누적(4.9조원)과 비교하여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 동 기간 예금은행 가계 원화예금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예금은 각각 2.4조원, 8.1조원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2025년 4분기말 가계 금융자산 내 주식·펀드 비중은 더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중자금의 자본시장 이동으로 예금취급기관의 예금 이탈 증가

예금취급기관의 예금 이탈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예금취급기관의 수신증가율은 3.6%로 직전 5개년(2020년~2024년) 평균(7.1%)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예금은행 가계 원화예금의 증가율은 1.7%에 불과해 직전 5개년 평균(8.0%)을 크게 하회했다. 생명보험의 수신은 감소한 반면, 자산운용(MMF 포함) 및 기타금융회사 수신 규모는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금융기관 수신의 연도별 증감률

구분	예금취급기관	예금은행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	생명 보험	자산 운용	기타
			가계 원화예금				
직전 5 개년 평균 (20 년~24 년)	7.1%	6.8%	8.0%	7.6%	3.1%	9.9%	6.8%
2025 년	3.6%	4.3%	1.7%	2.2%	-0.4%	24.0%	16.4%
25.4Q	-0.5%	-0.4%	-0.2%	-0.8%	-2.7%	4.7%	3.2%

주) 1.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합계, 기타는 종합금융회사, 신탁, 기타 합계
2. 연도별 증감률은 전년말대비 증감률, 2025년 4분기 증감률은 전분기말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정보시스템

현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과 거래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 이후 투자자금 수요의 상당부분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2025년 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수신 잔액은 17.4조원 감소(은행 △9.3조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8.1조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 기간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11.4조원 증가하였고 CMA 잔고 증가액도 6.8조원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예금으로부터 증시로의 대규모 자금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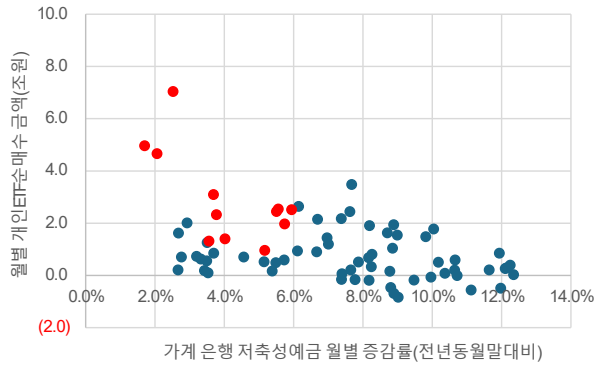
최근 종합 IB 가 제공하는 발행어음 및 원금지급형 IMA 상품이 저축성예금의 대체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어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자산의 추가적인 이동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발행어음 3%대 중반, IMA 4%+a),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발행 증권사 신용도(AA 급), 원금지급형으로서의 안전성(IMA) 등을 감안하면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저축성예금 대체상품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 저축성 예금 증감액과 증시자금 간 역(-)의 상관관계 크게 높아진 상황

2025년 이후 가계 저축성예금 증감액과 개인 ETF 순매수 금액, 투자자예탁금 및 개인 CMA 잔고 증감액 간 역(-)의 상관관계는 매우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월별 가계 저축성예금 증감액과 개인 ETF 순매수 금액은 직전 5개년(2020년~2024) 기준으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2025년에는 상관계수가 -0.68을 기록하며 역(-)의 상관관계가 크게 높아졌다.

투자자예탁금과 개인 CMA 잔고의 증감액 또한 2025년 들어 가계 저축성예금 증감액과의 역(-)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가계 저축성예금 월별 증감액과 투자자예탁금 월별 증감액 간 상관계수는 직전 5개년 평균 -0.41에서 2025년 -0.94로 크게 높아져 투자자예탁금 증가가 저축성예금 증가율 둔화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 가계 저축성예금 증감률과 개인 ETF순매수 금액 (2020년~2025년 월별 기준, 붉은색 점은 2025년)



[그림 8] 가계 저축성예금 증감액과 증시자금 간 역(-)의 상관관계

가계 저축성예금 월별 증감액과의 상관계수	2020 년 ~2024 년	2025 년
월별 개인 ETF 순매수 금액(A)	-0.1254	-0.6788
투자자예탁금 월별 증감액(B)	-0.4121	-0.9376
개인 CMA 잔고 월별 증감액(C)	-0.0534	-0.4238
A+B+C 합계액	-0.3233	-0.8901

주) 1. 가계 저축성예금은 예금은행 원화예금 기준
2. 월별 증감액은 월말 잔액의 전년동월말대비 증감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자료를 기초로 한국기업평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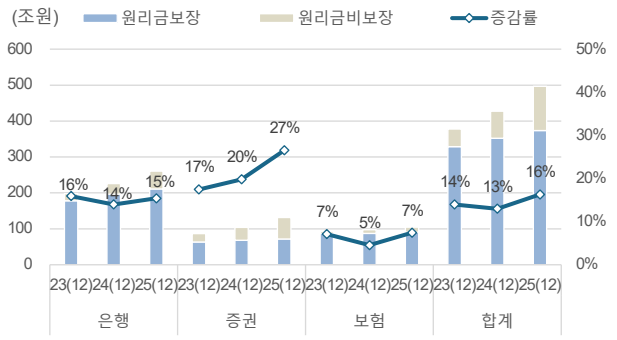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정보시스템,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한국거래소 Data Marketplace 자료 참조, 한국기업평가 분석

3. 퇴직연금 운용에서 나타나는 위험선호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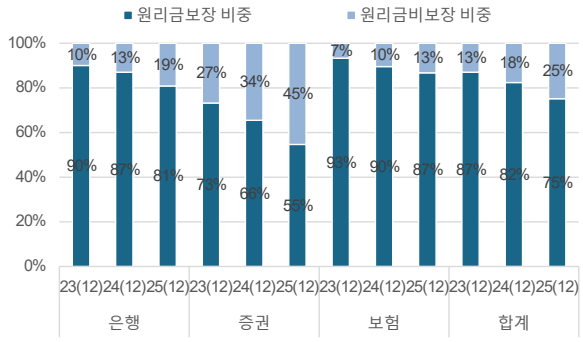
퇴직연금 적립금 원리금비보장형 비중 확대 추세

퇴직연금 운용에서도 위험선호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5년말 기준 496.8조원(원리금보장형 373.6조원, 비보장형 123.2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6% 증가하였다. 동 기간 원리금보장형 증가율은 6%에 그친 반면 원리금비보장형 증가율은 64%에 달하여 퇴직연금 운용전략도 위험선호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리금비보장형 비중은 2023년말 13%에서 2024년말 18%로 증가한 데 이어 2025년말에는 25%까지 확대되었다.

[그림 9]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



[그림 10]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비보장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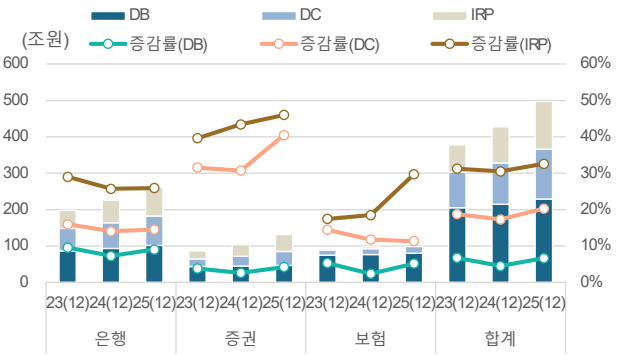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한국기업평가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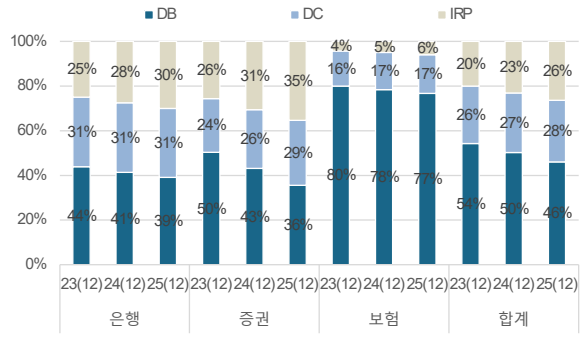
증권업권 비중 확대 추세인 반면 보험업권 비중은 축소

2025년말 유형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DB 형 46%, DC 형 28%, IRP 26%이며, 증가율은 IRP, DC, DB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업권별 적립금 비중은 은행 52%, 증권 26%, 보험 21%로, 은행업권의 비중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증권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험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권 퇴직연금 적립금이 증권업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 2분기 이후 증권업권의 적립금 규모가 보험업권을 추월하였다. 퇴직연금 운용가능상품의 다양성과 운용의 편의성 차이가 업권간 퇴직연금 자금 이동의 유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DC 및 IRP 계좌에서 ETF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증시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도 증권업권 비중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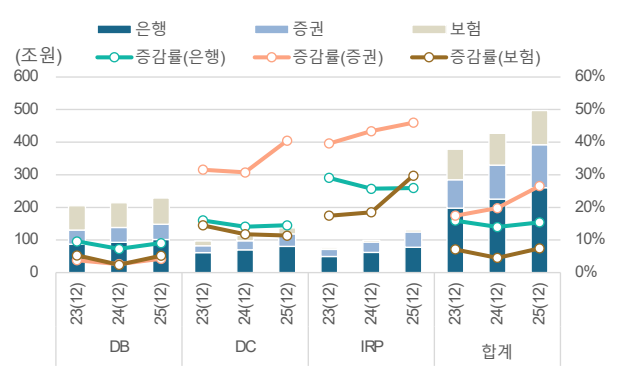
[그림 11] 유형별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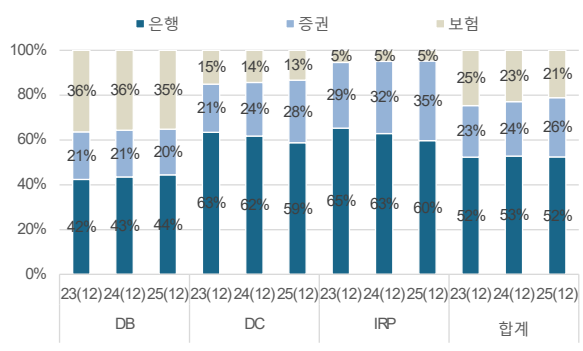
[그림 12] 유형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그림 13] 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



[그림 14] 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한국기업평가 정리

4. 금융업권별 조달구조와 머니 무브

은행/서민금융기관은 예금 위주, 보험기관은 보험부채 위주의 조달구조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리밸런싱에 따른 머니 무브가 금융업권 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기준으로 주요 금융업권의 금융부채 구성을 분석해 보았다. 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은 금융부채 중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 3분기말 기준으로 각각 60%, 89%에 달한다. 특히 저축성예금 등 비결제성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9%, 83%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2025년 4분기 이후 위험자산 선호로 가속화된 예금 이탈이 조달 측면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기관은 금융부채 중 보험준비금 비중이 85%에 달하여 보험부채에 대한 조달 의존도가 매우 높다.

증권기관과 여신전문기관은 시장성자금 조달 비중이 높아

증권기관은 RP 매도(19%)와 기타예수부채(31%) 조달 비중이 높고 그 외 파생결합사채(10%), 금융채(5%), 기업어음(4%), 기타금융중개기관차입(3%)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조달구조가 다각화되어 있고 시장성자금 조달 비중도 높은 편이다. 여신전문기관은 금융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69%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시장성자금 조달에 의존하고 있다.

[표 4] 주요 금융업권별 금융부채 잔액 및 비중 현황(2025년 3분기말)

(단위:조원)

구분	은행		서민금융기관		보험기관		증권기관		여신전문기관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예금	2,584	60%	1,038	89%	1	0%	525	50%	-	0%
보험/연금준비금	-	0%	-	0%	1,257	85%	-	0%	-	0%
사채	548	13%	0	0%	32	2%	206	20%	286	69%
차입금	141	3%	23	2%	1	0%	41	4%	21	5%
지분증권	252	6%	38	3%	112	8%	69	7%	56	13%
기타 금융부채	747	17%	63	5%	74	5%	199	19%	52	13%
금융부채 합계	4,272	100%	1,162	100%	1,477	100%	1,041	100%	416	100%

주) 자금순환표 분류 상 증권기관 예금은 RP매도와 기타예수부채로 구성되며, 사채에는 파생결합증권과 기업어음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한국기업평가 정리

가계는 금융부문의 주요 채권자(투자자), 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 부문의 조달의존도 높아

한국은행 상세자금순환표(From-Whom-To-Whom tables)를 바탕으로 채권자(투자자) 측면에서 금융업권별 자금조달 비중도 살펴보았다.

2024년말 기준 금융부문 채무(예수금+금융채+차입금)의 채권자(투자자) 구성을 살펴보면, 가계는 금융부문 채무의 주요 채권자(투자자)이다. 은행의 가계 부문 조달의존도는 35%로 상당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신탁, 서민금융기관)과 보험및연금기관은 가계 부문 조달의존도가 각각 70%, 94%로 매우 높다. 따라서 가계 부문 자금이 주식 · 펀드를 포함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면서 해당 부문 채무에 대한 투자수요가 감소할 경우 조달측면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은 기업부문에 대한 조달비중도 상당하여, 기업 부문 자금이동에 따른 리스크에도 노출되어 있다.

기타금융기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조달의존도 높은 수준

증권기관, 여신전문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기타금융기관은 가계 부문에 대한 조달의존도가 높지는 않고 타 금융업권에 대한 조달의존도가 높은 수준이다. 특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조달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 머니 무브로 비은행예금에 대한 가계 부문의 투자수요가 감소할 경우 기타금융기관의 조달에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표 5] 주요 경제부문간 상호연계규모 및 비율(2024년말)

(단위:조원)

채권 / 채무	한국은행	은행	비은행	투자펀드	보험및 연금기관	기타 금융기관	정부	기업	가계	비거주자	합계
한국은행	0.0 0.0%	185.2 1.1%	5.4 0.0%	4.1 0.0%	1.1 0.0%	13.7 0.1%	38.5 0.2%	46.0 0.3%	139.8 0.8%	18.2 0.1%	452.0 2.7%
은행	28.7 0.2%	160.3 1.0%	185.5 1.1%	108.5 0.6%	206.3 1.2%	266.0 1.6%	242.6 1.5%	732.3 4.4%	1,122.2 6.7%	130.1 0.8%	3,182.4 19.0%
비은행	0.0 0.0%	28.6 0.2%	14.2 0.1%	6.6 0.0%	51.6 0.3%	89.4 0.5%	24.8 0.1%	194.6 1.2%	1,094.6 6.6%	57.6 0.3%	1,562.0 9.3%
투자펀드	0.0 0.0%	98.2 0.6%	33.7 0.2%	54.9 0.3%	364.7 2.2%	149.3 0.9%	168.5 1.0%	158.0 0.9%	130.0 0.8%	5.1 0.0%	1,182.3 7.1%
보험및 연금기관	0.0 0.0%	2.1 0.0%	1.7 0.0%	0.9 0.0%	62.1 0.4%	3.2 0.0%	0.3 0.0%	31.9 0.2%	1,587.2 9.5%	1.5 0.0%	1,690.8 10.1%
기타 금융기관	15.4 0.1%	150.8 0.9%	440.6 2.6%	220.3 1.3%	176.2 1.1%	328.5 2.0%	88.5 0.5%	61.5 0.4%	206.9 1.2%	73.2 0.4%	1,761.9 10.5%
정부	30.7 0.2%	234.2 1.4%	12.7 0.1%	48.4 0.3%	347.2 2.1%	83.1 0.5%	202.0 1.2%	6.4 0.0%	114.9 0.7%	236.1 1.4%	1,315.8 7.9%
기업	0.0 0.0%	1,284.4 7.7%	397.2 2.4%	119.7 0.7%	288.7 1.7%	401.8 2.4%	212.0 1.3%	6.9 0.0%	20.0 0.1%	97.8 0.6%	2,828.4 16.9%
가계	0.0 0.0%	1,199.9 7.2%	472.1 2.8%	2.2 0.0%	111.0 0.7%	431.9 2.6%	74.7 0.4%	0.0 0.0%	0.0 0.0%	0.0 0.0%	2,291.8 13.7%
비거주자	0.0 0.0%	66.5 0.4%	70.8 0.4%	72.5 0.4%	120.2 0.7%	25.6 0.2%	49.4 0.3%	5.0 0.0%	29.5 0.2%	0.0 0.0%	439.5 2.6%
합계	74.8 0.4%	3,410.2 20.4%	1,633.8 9.8%	638.0 3.8%	1,729.0 10.3%	1,812.6 10.8%	1,101.4 6.6%	1,242.6 7.4%	4,445.0 26.6%	619.4 3.7%	16,706.9 100.0%

주) 1. % 비중은 총액 대비 비중, 음영처리된 셀은 색이 짙을수록 높은 의존도를 의미
2. 가계에는 비영리단체 포함
3. 비은행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은 증권기관,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 금융보조기관, 지주사, SPC, 대부업체 등
자료: 한국은행 상세자금순환표

III. 금융업권별 영향과 시사점

시중자금 흐름의 자본시장 전환은 금융투자업의 사업환경 및 수익기반에 긍정적

경제주체들의 위험자산 선호(Risk-on)로 시중자금의 흐름이 자본시장 위주로 전환되면서 금융투자업권에 유리한 사업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 중인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증시 자금유입 확대는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기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증권업권은 위탁매매실적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 중이며, 증시주변자금 증가와 금융상품 판매 호조로 장단기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도 운용상품의 다양성과 운용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DC 와 IRP 를 중심으로 증권업권 비중은 확대되고 보험업권 비중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생산적금융전환 추진에 따른 발행어음 및 IMA 사업 확대,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및 혜택 강화, 세제혜택이 부여될 국민참여형펀드 조성 계획도 증권업권의 수익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호적인 조달 환경 하에 위험 추구 성향이 높아지면서 운용 측면의 리스크도 커지고 있으며, 만기 및 유동성 변환 기능에 따른 신용·유동성 리스크 노출도도 여전히 높아 과거 금융위기나 부동산 PF 사태와 같은 금융시장 충격 발생시 리스크 관리 능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예금취급기관은 예금이탈 부담에 노출, 시장성 자금조달 증가나 수신금리 인상으로 순이자마진 위축 전망

예금취급기관은 예금 이탈에 따른 유동성 부담에 노출되어 있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증시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예금취급기관의 수신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리매력도가 낮아진 저축성예금의 수신자금이 증시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동하고 있고 저원가성 핵심예금(요구불예금)도 증권사 RP 나 CMA 등 단기성 금융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예금 이탈을 메우기 위한 은행채 발행 등 시장성 자금 조달 증가나 수신금리 인상이 순이자마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권 영업위축 예상, 여신전문 금융업권도 조달 측면에서 간접적인 영향에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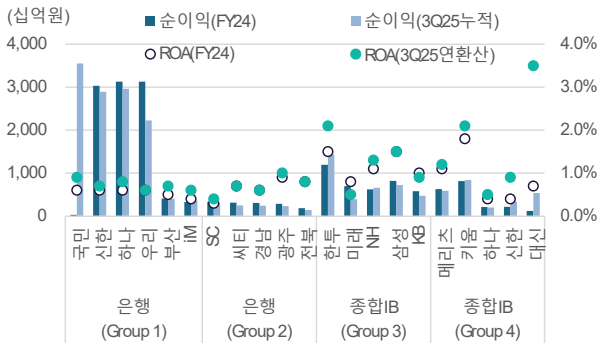
보험업권의 경우 가계부문에 대한 조달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감안하면 가계 금융자산의 자본시장 이동 확대로 저축성 보험 등의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2024년 2분기 이후 적립금 규모가 증권에 추월당한 상황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자금조달을 차입 및 사채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권은 가계부문 조달의존도가 높지는 않지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조달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 가계 부문의 머니무브에 따른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예금 이탈이 조달 측면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호적 사업환경 하에 은행과 대형증권사 간 격차 축소, 재무완충력과 실적대응력 검증이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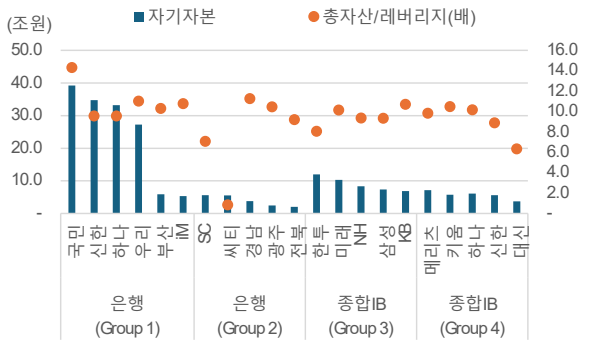
증권업에 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조성되면서 금융산업 내 경쟁지위 측면에서 은행과 대형증권사 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특히 영업기반 및 자본력이 우수한 종합 IB 는 외형확대와 이익창출 규모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산업 내 비중과 영향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은행업권은 예대업무 위주의 사업구조로 이자순이익 의존도가 매우 높아 대형증권사 대비 수익기반 다각화 정도가 미흡하다. 일반은행의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순수익 대비 이자순이익 비중은 평균 87.3%에 달한다. 4대 시중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들은 대형증권사 대비 자본력이나 이익창출규모도 열세에 있다. 조달 안정성 측면에서 수신기반 보유가 은행업권의 핵심 경쟁우위로 작용하고 있으나, 최근 시중자금의 자본시장 유입 증가와 더불어 RP, CMA, 발행어음, IMA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금리매력도와 발행증권사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예금의 대체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어 조달 안정성 측면의 은행과 대형증권사 간 차이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림 15] 일반은행과 종합IB - 수익성 비교



[그림 16] 일반은행과 종합IB - 자기자본 비교(2025년 9월말)



자료) 각 사 분기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그러나 위험성향과 리스크 프로파일 측면에서 대형증권사는 은행 대비 여전히 높은 사업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신용평가 관점에서는 이러한 사업위험의 차이를 상쇄하려면 충분한 재무완충력 보유와 리스크 관리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 증시 변동성에 노출된 위탁매매 부문과 금리·주가 등 시장 변동성에 노출된 상품운용 부문의 실적변동성도 안정적인 이자마진이 주된 수익기반인 은행과 비교하여 높은 리스크 요인이다. 수익안정성 강화를 통해 시장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실적대응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검증될 필요가 있다.

생산적금융전환 추진으로 금융회사 위험선호와 리스크 익스포저 확대될 전망, 건전성 관리 강화와 손실흡수력 유지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금융 전환은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위험선호와 리스크 익스포저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손실흡수력 유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금융 쏠림을 억제하고 생산적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운용규제 개선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금융업권의 생산적금융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PF 등 부동산금융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주된 수익원으로 기능해 온 부동산 금융의 위축이 불가피하므로 대체수익기반 발굴을 통한 퇴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성장펀드 참여와 첨단산업 및 벤처·혁신기업 투자 확대, 지역금융 강화 등을 포함하는 생산적금융 전환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금융업권의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위험선호와 리스크 익스포저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위험가중치 완화나 감독 개선 등 규제 유인 체계가 마련되고 있어 생산적금융 공급 확대가 금융업권의 건전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손실흡수력 유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생산적금융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산포트폴리오 재편과 건전성 추이에 초점을 두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유의사항]

(1) 한국기업평가㈜(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6, Korea Rating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

KRIR 2026-009, 2026-03-09